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 은혜의 통로되길”

벨플라워 가나안교회
박일서 담임 목사 취임예배

가나안교회(담임 박일서 목사)가 지난 28일 오후 5시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경섭 목사(OC 영락교회)는 “부르심의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가나안교회 53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시대와 사명을 위해 박일서 목사님을 세워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 목사와 함께한 사역의 추억을 나누며 “짧은 시간이 었지만 깊은 신뢰와 기쁨의 동역이 있었고, 다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며 “목자로 부르심은 명예나 직분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현신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일서 목사님은 성실



가나안교회(담임 박일서 목사)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기독일보

과 현신, 눈물의 목양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할 분이다. 목회자는 물론 성도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며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가나안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

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취임 인사말에서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부터 저를 아시고 성별하셨다는 말씀은 제게 현신을 다짐하게 한 생

생한 부르심이었다”며 “그 고백을 불잡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지 못한 저를 성도들의 사랑이 채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2면에서 계속

예배 출석부터 줄어든다… 종교 쇠퇴의 세계적 흐름 조망

35개국 종교적 소속감 비율 5% 하락
호주, 칠레, 우루과이, 미국 감소 폭 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종교적 정체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젊은 세대가 예배 참석을 중단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과의 결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추적했다.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하고, 국제 학자들의 논문과 함께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35개국에서 종교에 소속감을 갖는다고

답한 비율이 최소 5%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 폭이 훨씬 커는데, 호주와 칠레는 17%포인트, 우루과이는 16%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하락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학자들이 “세속화 전환(secular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 단계적 과정을 따른다고 제안한다. 111개국 및 지역에서 수집한 설문을 바탕으로, 종교가 세대를 거쳐 쇠퇴하는 세 단계의 반복적 순서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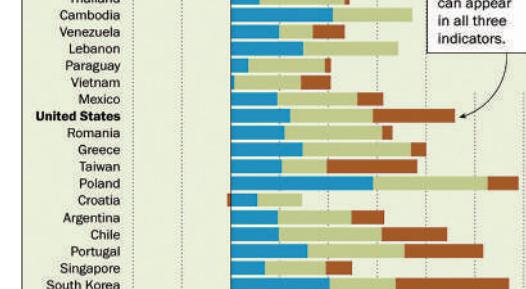
즉, 참여(Participation) → 중요성(Importance) → 소속(Belonging)의 순서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젊은 성인들이

기성세대보다 예배에 덜 참석하지만, 여전히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한다.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세네갈에서는 노년층의 78%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반면, 청년층은 64%가 참석 한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강한 신앙심과 거의 보편적인 무슬림 정체성을 보인다.

중간 단계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각 국가별 종교성을 세 가지 범주-파란색(참여), 녹색(중요성), 갈색(소속)-로 측정했다. 세속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Pew Research Center

예배 참석, 신앙의 중요성, 소속감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크리스처니티 데일리 인터내셔널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율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법·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T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전통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baeksong.kr

2025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A church where miracles are real
LA백송교회 Lily Pine International Church
Spirituality Festival
찬양과 말씀의 향연

Praise
기쁨부으심이 넘치는
이순희찬양콘서트
Victoria Lee Praise Concert
10/25/2025 (SAT) 3:00 PM

김성식 목사
Pastor . Daniel Kim

20th
성령컨퍼런스
20th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0/26/2025 (SUN) - 11/5 (WED) 7:30 PM

백송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Pastor . Victoria Lee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 Tel. 562-606-2345, 213-249-4790

제17회 선교와 이웃 돋기 사랑의 찬양제, 은혜와 감동 선사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주최 엘몬테 나성한미교회서 개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이득표 장로)가 주최한 제17회 선교와 이웃 돋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9월 21일(주일) 오후 5시, 나성한미교회(홍충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찬양제는 '초가을에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와 이웃 사랑을 실천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찬용 장로(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회장 이득표 장로의 환영 인사와 직전 회장 서경원 장로의 기도가 이어졌다.

홍충수 목사는 '사랑하는 자여!'(요한3서 1장 2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선교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금 순서에서는 테너 오위영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불러 감동을 전했다.

엄광섭 장로(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찬양제는 남가주 교회 성가대와 합창단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무궁화여성합창단(지휘 지경)은 '만유의 하나님', '이 기쁜 날'을 합창하며 찬양제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실비치 사랑교회 성가대(지휘 송종현)가 '주님', '주의 나팔소리 날 때'로 은혜를 더했다.

미주 여성 코랄(지휘 오성애)은 'In the Arms of Sweet Deliverance', 'Marching To Glory'를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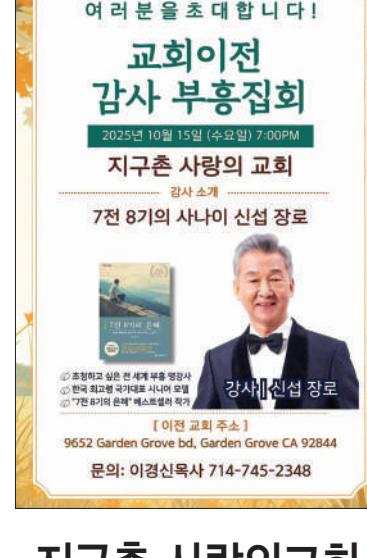
제17회 선교와 이웃 돋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나성한미교회에서 개최됐다. ©남가주장로협의회 제공

름답게 선사했다. 소프라노 김시연 한인 로고스교회 성가대(지휘 이은 '여정', 'Alleluia'를 솔로 무대로 흥우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불렀다.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지휘 김정대)은 'Soon and Very Soon', 'Majesty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은혜 찬양단(지휘 지경)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주 예수 나의 산소 망', 나성한미교회 성가대(지휘 이준실)는 '깨끗e 하시리 &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The Medley of Handel's Messiah', '넉넉히 이기니느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를 불렀다.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김정대)은 '선한 능력으로', 'I Love You, Lord'를 불렀고, 마지막으로 연합 찬양팀이 함께 'alleluia'를 불러 깊은 울림을 남겼다.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샘 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지구촌 사랑의교회 교회 이전 부흥집회

10월 15일(수) 오후 7시 지구촌 사랑의교회(이경신 목사)가 교회 이전 감사 부흥집회를 연다.

강사는 <7전 8기의 은혜>를 쓴 신섭 장로이다. 신섭 장로는 초청하고 싶은 부흥 명강사이며, 한국 최고령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교회 주소는 965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이며, 문의는 이경신 목사(714-745-2348)에게 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데릭 임 목사 취임… 오네시모 선교회 음악회, 세대교체 알린다

플러톤 은혜의강 감리교회서 주일 저녁 6시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데릭 임 목사, 후원회장 한영숙 권사)가 재소자와 재소자 가족을 후원하는 제22회 후원 음악 콘서트가 '간 힌자에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2일(주일) 저녁 6시 오렌지 카운티 플러톤 시에 위치한 은혜의 강 감리교회(주소: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5, 담임 김태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후원회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황혜경, 메조 소프라노 정희숙, 바리톤 장상근, 바리톤 김정호, 피아노 이성애, 남성중창단 칸투스(지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데릭 임 목사)는 10월 12일(주일) 오후 6시 은혜의 강 감리교회에서 재소자와 재소자 가족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연다.

휘: 장상근; 반주 이소리)가 연주를 맡는다. 오네시모 선교회와 연결된 이들의 영상 간증순서도 마련된다.

1994년 김석기 목사가 창립한 오네시모 선교회는 캘리포니아 재소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역을 해

오고 있다. 교도소 및 감옥 방문사역, 문서 사역, 성경 통신대학 및 예방사역, 주방자 연결 및 재활사역 등을 통해, 재소자들을 유익한 자료로 세우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음악회 수익금은 남가주 35개 교도소의 한인 재소자들을 돋는 데 사용된다.

특히 올해는 데릭 임 목사를 선교회 대표로 새로 청빙하여 선교회가 차세대로 사역을 계승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콘서트를 통해 선교회의 세대교체를 대내외로 알리고 후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부에나파 시에 있다. 김민선 기자

오네시모 선교회 주소: 7751 Stanton Ave, Buena Park
전화: 714-739-9100

LA백송교회 찬양콘서트 및 성령 컨퍼런스

LA백송교회가 10월 25일(토) 오후 3시 이순희 목사(백송교회 담임)를 초청해 찬양콘서트를 개최 한다.

찬양콘서트를 시작으로, 10월 26

일(주일)부터 11월 5일(수)까지 '기적, 변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제20회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강사는 LA백송교회 담임인 김성식 목사와 이순희 목사이다.



LA백송교회 20th 성령 컨퍼런스
2025.10.26(SUN) - 11.5(WED) 7:30PM

LA백송교회 담임 목사 이순희 목사
Pastor Daniel Kim

시니어 사역, 이제 '돌봄' 아닌 '동역'이다

CPU 평생교육원 백세사역
전문과 과정 개강, 시니어 교육
관심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한국, 남미까지 확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이하 CPU) 부설 평생교육원(PULI)은 지난 9월,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Active Seniors Ministry Lecture Series)' 1기를 성공적으로 개강했다.

이번 과정에는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플로리다 올랜도,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은 물론, 한국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학생이 등록하여, 시니어 사역에 대한 전 세계 한인 교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본 과정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 사역의 패러다임을 '돌봄'에서 '동역'으로 전환하고, 시니어 성도들을 교회의 핵심 동력으로 세우는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회자, 평신도, 시니어 성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전문 과정으로, 교회의 현실적 필요에 응답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SPM 1기 과정은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 △시니어 인생 완성학 개론 △시니어를 위한 소그룹 사역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교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역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Zoom 온라인과 현장 수업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1기를 개강했다 ©CPU 평생교육원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참 배우는 글로벌 학습 공동체를 이루여하여, 국경과 시차를 넘어 함께 고 있다.

CPU 평생교육원은 오는 12월 시작되는 SPM 2기 과정부터 새로운 등록자를 받는다.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이들도 2기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안에 전체 4개 모듈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부여된다.

CPU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미주와 한국, 그리고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한인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입학 문의

입학 원서: <https://forms.gle/r5yJgVHEchjMPya6>

담당자: 황성만 목사

이메일: puli_pm@cpu.edu

전화: 1-562-536-0128

홈페이지: <https://lifelong.cpu.edu/>

성경필사 통해 예화 아닌 말씀 붙잡는 은혜

미라클교회 성경필사 전시회
전교인이 성경 전체 필사

미라클LA교회(신병우 목사)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성경필사 대단원의 마무리를 짹고 전시회를 29일 주일 예배 이후에 열었다.

성도 23명이 신약성서를 필사했으며, 참여자들은 이날 그간 노력과 수고의 산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또한 교회 전교인이 참여해 신약과 구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책을 필사하기도 했다. 이 성경책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 스페니시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한어권이, 신약은 EM 교인들이 참여해 필사했다.

신병우 목사는 "성도들이 간증 책이나 큐티(QT)책 속 예화 같은 보조 자료만 읽고 은혜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1차 자료는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말씀을 읽고 쓰는 데 시간을



미라클LA교회가 성경필사 전시회를 열었다. 필사에 참여한 교인들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일보

들이게 되면 다른 책을 읽을 시간 조차 없게 된다.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미라클LA교회는 현재 전 교인들이 함께하는 365일 성경통독 팀과 별도로 약 40명이 참여하는 180일 통독팀을 운영 중이다. 성도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소그룹으로 나뉘어 성경을 읽고 퀴즈에 참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등 활발한 온라인 영성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신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라클LA교회에서 시작해 참여하고 있는 '비전 50 선교회'는 현재까지 18개국 3천 교회, 4천 목회자, 12만 성도가 회원으로 동역하고 있으며, 앞으로 20여 년 안에 50만 선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전 50 선교회는 선교사 50만 명을 이슬람, 공산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파송하는 선교운동이다.

2024년 기준으로 C국, 말리,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감비아, 말라위 등의 여러 나라에 1만 108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주소: 3460 Wilshire Blvd, 7FL, LA
주일 예배: 10:30 AM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목사 안수식 거행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11회 가을 정기회가 9월 22일(월) 남가주 하나님의 노명구 목사(노회장)에서 진행되었다.

1부 예배로 노회장 김성권 목사(필랜드성은교회 담임)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노회'(고전 6:17) 설교와 직전노회장 김정호 목사(조이풀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로 노명구 목사(남가주 하나님의 노회)의 성찬 예식, 3부 회무를 진행했다. 회무 진행 중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김사론, 최대성 씨에게 합격증을 전달했다. 또한 김희수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김희수 목사는 한국에서 참여해 큰 격려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민선 기자



→1면 기사 <예배 출석부터 줄어든다>에 이어서 미국을 비롯해 미주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젊은 성인들은 교회 출석 빈도가 낮을 뿐 아니라, 신앙을 일상에서 덜 중시하고, 종교적 소속이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

후기 단계에서는 이미 모든 세대에서 예배 출석과 신앙의 중요성이 낮아져, 종교적 소속 여부만이 주요 구분선으로 남는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노년층의 79%가 여전히 종교를 가진다고 답했지만, 청년층에서는 이보다 26%포인트 낮았다.

저자들은 기독교 혹은 불교가 주류인 나라들이 대체로 중간이나 후기 단계에 있으며, 무슬림 다수 국가와 힌두교 다수 국가인 인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한 궤적을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예외도 존재한다. 공산주의 이후의 동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종교가 억압된 뒤 민족주의적 종교 부흥이 뒤따르면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조지아와 같은 정교회 및 이슬람 다수 국가들이 일반적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스라엘 역시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정통파 및 초정통파 가정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 젊은 세대가 노년층만큼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세속화 전환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지만, 결코 획일적이거나 불가피한 과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 사회가 언제 이 과정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세 단계를 모두 거치는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경 빅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함께 하세요!)

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21일(화) 오전 9:30~오후 5:00

장소 : 갈보리선교교회 (심상은 목사 시무) (714)722-4805

8700 Staton Ave., Buena Park, CA 9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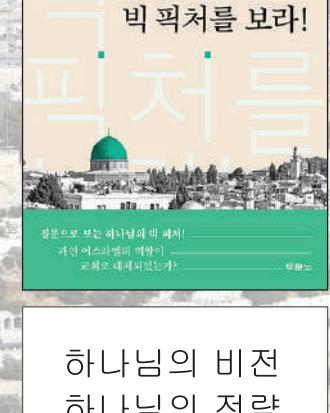
■ 신청 : 김웅자사모 (818)825-1764, 문자, 카톡 ID: glovic

hisjoy123@gmail.com

(신청 링크) <https://forms.gle/PBy2eb0fjDK4P8>

■ 마감 : 10월 10일까지(선착순50명 성경 빅픽처를 보라! 증정)

(신청비 : 없음, 점심제공)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빅 픽처를 한눈으로 본다."



WHPK 김인식 원로목사
CPU 박사원 교수
KWM 대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돋는 Heaven Matched 런칭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순간들이 언젠가 하나씩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게 될 때가 있다. 신앙이란 바로 그 연결의 과정이며,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삶의 조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드러나는 길이다.

지난 9월 19일 플라튼 사무실에서 만난 김한나 집사(로렌하이츠 아름다운교회)가 '헤븐매치드(Heavenmatched.com)'를 소개하며 꺼낸 이야기들이 바로 점선잇기 같았다.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 네 명의 손자를 둔 김한나 집사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을 싱글들과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김 집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단한 가지에 대해서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본인들 역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었기에 자녀들의 혼사에 관여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을 보내 결혼을 준비했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이삭은 어머니를 잊은 슬픔을 잊게 된다. 반면에, 서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으로 고민하며, 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이혼율은 늘고,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 불쌍한 인간은 쌍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말씀에서 시작된 사역

이 사역의 시작은 2025년 신년 말씀을 받은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년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받은 그는 어리둥절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물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던 중, 지난 6월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린 시니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2030년에는 한인교회 주일 학교가 거의 사라진다는 비관적 전망, 한인교회 70% 이상이 고령화에 들어갔다는 전단 앞에, 그는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김한나 집사(아름다운교회)는 올해 신년 말씀으로 창 1:28을 받았을 때, 의아했으나,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는 시니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기독일보

님의 답은 '시집, 장가 빨리 보내 자녀를 낳게 하는 것.' 그래서 김한나 집사는 싱글 청년들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매치 메이커가 되기로 결심했다.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웠다. 고승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할 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저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니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세미나에 참석 하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사역의 방향은 기도를 통해 구체화됐다. 김 집사는 스피드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짹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짹게 대화할 수 있게 하는 행사로, 일정한 장소에서 자리를 뜯겨가며 주어진 시간 동안 이성들과 대화를 나눈다. 참가자들에게 10분씩 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간다. 모임이 끝나면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눈다.

그룹으로 세 번 이상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여러 주제의 질문이 적힌 카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AI 매칭 서비스 활용

또 하나는 AI 매칭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 30년 이상 사용해온 프로그램으로, 이 시스템에 각 사람의 데이터를 입력해, AI를 통해 사람들에게 매칭한다. 돌싱들, 시니어들도 매칭한다.

"100세 시대인데, 60세에 사별했다면, 남겨진 시간을 훌로 살아가기 많이 외롭고 힘들다. 또 목사님들도 사별하신 분이 많이 계신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철이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 방향에 맞지 않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나 결혼 준비가 됐는데 짹을 찾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25명의 남성과 25명의 여성이 함께 리트리트 장소에서 2박 3일 정도 합숙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도 준비했다. 여러 액티비티, 학습 세션, 그룹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자는 캐주얼, 정장, 프로페셔널 세 가지 복장을 준비해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한다. 이 기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연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피드백을 검토해 적합한 매칭이 있을 경우 직접 연결해 준다.

어떻게 그는 갑자기, 매치 메이킹이라는 사역에 도전하게 되었을까? 이 결정은 그의 가정이 걸어온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미 이혼장을 준비해 남편에게 사인을 요구했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는데, 네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니?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친구가 한 말이 있다.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그런데 남편이 LA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안수를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진짜 놀랍게 성령체험을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그 날은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자기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며, '다시 돌아오면, 내가 좋은 아빠 남편 하겠다. 나 좀 용서해 달라', 친구가 한 그 말을 했다."

Heavenmatched는 어떤 곳인가

Heavenmatched는 가입비나 고액의 멤버십 없이, Pay as you go(참여한 만큼 지불)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다.

Heavenmatched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을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결모습 중심의 매칭, 가짜 프로필, 높은 비용, 그리고 위험한 만남의 문제를 안고 있다. Heavenmatched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안전한 환경, 성경적 가치관, 겸증된 만남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결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스스로 기도로 준비된 배우자가 되도록 돋는다.

김집사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는 것은 완전히 무료이며, 이벤트 참가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양식을 제출하면, 회원님의 프로필은 1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며, 업데이트 시기가 되면 알려드린다"며 "저희는 최첨단 AI 매칭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기독교 성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돋는다. 회원님 지역에서 매칭이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 개인 초청장을 받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료 지역 성글 모임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성글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주디 한 기자

<https://www.heavenmatched.com/>

문의 : 김한나 집사(714-510-6586)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G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추 — 석

풍성한 한가위, 든든한 건강
센터메디컬그룹은
가족같은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연락: (888) 847-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접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거룩한방파제 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 낙태, 차별금지법 반대”

27일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서 약 5만 명 참석 속 진행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 대회가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젠더평등’, 곧 수십 가지의 이른바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며,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낙태 전면 허용,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다.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가 사회를 본 1부 연합기도회에선 안석문 목사(한국교회사임세대지킴이연합 상임총무)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제자광성교회 담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레미야 3:39~4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도 촉구하고 계신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통”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석자들이 ‘성평등가족부 반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곳엔 질서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법칙이 있다. 그 창조질서를 떠나 살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며 “이 땅에 태풍처럼 불고 있는 성혁명은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일터, 심지어 군대에서 조차 그 질서를 깨트려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박 목사는 “남녀라는 질서를 깨고 자기 취향대로 성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고통을 주게 된다”며 “그럼에도 이 나라의 지도자라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잘살고 행복하게 할까’ 하는 고민은 뒤

로 한 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바꾸며 만들며, 낙태를 자유롭게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나라의 권세자들만 꾸짖을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다. ‘내 행복만 유지된다면, 내 재산만 지킬수 있다면…’ 이런 이기심과 탐욕 속에 있다”며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고 했다. 박 목사는 “결국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 이런 위험한 세상이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땅

에 거하는 백성들 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옆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길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세상에 외치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는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자”고 외쳤다.

이후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이광진 목사(필그림선교교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회개와 거룩’, 이선규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사회사역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 반대’,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 김윤기 목사(더바이블처치 담임)가 ‘생활반자법 반대’, 염보연 목사(한사랑교회 담임)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윤화 목사(아름다운피켓 대표)가 ‘낙태 전면 허용 및 약물 낙태 허용 반대’, 안희환 목사(예수비전교회 담임)가 ‘종교의 자유 침해 반대’, 신상철 목사(더복있는교회 담임)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심하보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은평제일교회 담임)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친 뒤 곧 바로 2부 국민대회가 이어졌다. 길원평 교수(거룩한방파제 공동준비위원장, 동성애반대연합 운영위원장),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김길수 대표(생명운동연합 대표), 조영길 변호사(거룩한방파제 전문위원장), 지영준 변호사(예배회복을 위한자유시민연대 법률전문위원) 등이 성평등과 낙태, 차별금지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회의 성명서는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낭독했다. 거룩한방파제는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에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개념의 수용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회 담임목사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종교적 탄압이자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거룩한방파제 국민대회, 대한민국 살리자는 피 끓는 호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 9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일대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관련된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이 국민대회에 약 5만 명이 모였다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피 끓는 호소와 함께 온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국민대회였다”고 했다.

이어 “이날 대회에서 다뤄진 것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변경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약물낙태 허용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침해 반대였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은 성평등(젠더) 가치 확산과 여성·가족 중심에서 성소수자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포괄해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창2:24)을 기초로 하는 것을 해체하고 파괴하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변경”은 신체적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꿔주는 제도로,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이 불일치할 때, 군 복무, 스포츠 선수 선발, 남녀의 탈의실 사용, 화장실 이용 등에 있어 사회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윤리적, 도덕적 가치 파괴가 이뤄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창1:27)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심각한 반성경적이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낙태 전면 허용” 문제도 모든 상황에서 임신 중단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게 됨으로, 태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시 139:13~16)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명 경시 사상이 판을 칠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앞세워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약물 낙태 허용” 문제도 임신된 태아를 약물로 살해하는 것으로, 생명 경시 문화와 함께 여성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과 동시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범법적 행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생활동반자

법’의 문제도 결혼이 아닌 동거 관계, 동성 커플, 지인 관계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결혼한 정상적인 부부 사이처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동등하게 주자는 것”이라며 “결국 이 법은 결혼 제도와 가정의 성경적 기초(엡 5:31)를 무너트리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이끌려는 꼼수”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키워 온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성별, 종교, 성적지향, 범법 전과, 이념 사상 등에 관하여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혐오’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라며 “이는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려는 반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제도가 될

것(행5:29)”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런 악법(惡法)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왜곡과 부정, 생명 경시, 가정 제도의 해체, 신앙·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비민주적, 반종교적, 반기독교적인 제도를 구체화, 확립화하려는 것인 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마땅한 집회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세대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쓰나미처럼 죽음과 패망의 물결이 몰아지고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진리의 담보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내세워 죽음의 문화에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 · 꽃가루 · 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꿀!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꿀!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메디칼그룹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트렌턴장로교회 최치호 목사 인터뷰] “50년의 은혜, 이제 새로운 시작선에 서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뉴저지 트렌턴장로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2019년 담임으로 부임한 이후 교회를 이끌어 온 최치호 담임목사는 여러 도전 속에서도 예배 회복과 말씀 중심 목회를 통해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워 왔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선대 목회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최치호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목사님께서는 2018년 7월 트렌턴장로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랜 전통과 역사 위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을 안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보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트렌턴장로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로 황의준 원로목사님을 비롯해 선대 담임목사님들께서 오랜 세월 교회의 터를 닦으시고 헌신해 지켜 오셨습니다. 한때 크게 번창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성도 수가 줄고 재정적으로도 적지 않은 무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부임하실 당시에 ‘전통을 지키며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교회가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7년간 어떤 부분에서 전통을 살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을 시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트렌턴장로교회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주간 성경공부였습니다. 부임 이후 저는 이 전통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현재는 35명가량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간 성경공부에서 다른 본문은 새벽예배 설교로 연결하여 매일 한 장씩 나누었고, 주일예배에서는 새벽에 다루지 않은 본문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트렌턴장로교회 담임 최치호 목사 ©기독일보

또한 둘째 주 구역예배에서는 성도님들께서 받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나누도록 했습니다. 전통은 존중하되, 말씀의 ‘학습-예배-나눔-적용’이 이어지도록 하여 말씀을 구체화·실제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부임 초기 가장 먼저 손대신 사역이나 우선순위로 두신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 성령집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던 분들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 회복이 곧 교회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성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 예수님이 주인, 성령님은 인도자’라고 고백하며 짧게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부임한 것은 2019년인데, 그 해 9월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임하자마자 2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새벽과 저녁으로 드리며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어서 야내와 함께 대심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에

들어서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도님들과 함께 실천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턱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돋는, 작지만 큰 힘을 주는 신앙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이어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나눠주십시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고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은혜를 막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북한 동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차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동시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시고,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일 축도 시간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예배와 금요 성령집회 때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임 직후 곧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웠던 그 시기,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으며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이어가셨습니까?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

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새벽예배만큼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새벽예배 현장을 금습했는데,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드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정중히 인사하고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많아 온라인은 YouTube 녹화 송출을 했고, 한 달은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현장예배를 1부·2부로 나누어 드리며 예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일예배도 2020년 4월 한 달만 온라인으로 드렸고, 5월에는 차량 예배, 6월부터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는 저희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셨고, 예배를 끝까지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다가올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었고, 금요 성령집회는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인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트렌턴장로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의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사와 감격이 앞섭니다. 동시에 5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트렌턴장로교회는 한때 300~400명의 성도가 모이는 지역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잊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이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구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더 넓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전히 풀어야 할 현실적인 짐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회는 한마음으로 그 짐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꼭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변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40~50대가 된 2세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50년은 그들을 품고 다시 세우는 일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으며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0주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불어주신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저 개인에게는 목회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김대원 기자

TRUSTED SCHOOL IN TOWN

2025 NICHE BEST SCHOOLS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英 전역 교회 2천곳, 향후 5년 내 폐쇄 위기



©pixabay

영국 내 교회 약 2천곳이 향후 5년 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영국 자선단체 내셔널처치트러스트(National Churches Trust)가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6월 동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총 3천6백개의 교회가 설문 조사에 참여한 결과, 다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는 폐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70%는 2030년에도 예배 장소로 교회가 계속 운영될 것이라 자신했으며, 26%는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5%는 교회의 존속 여부에 확신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곳 중 1곳 꼴로 폐쇄될 위험에 처한 셈이다.

특히 농촌 지역 교회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위치한 교회의 7%가 향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로는 약 900곳에 달하는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단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감리교회

(Methodist)의 경우 12%가 2030년 이전 폐쇄될 수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불안감을 드러냈고, 장로교(Presbyterian)가 9%로 뒤를 이었다. 침례교(Baptist)와 독립교회(Independent)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여전히 폐쇄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한 성공회(Anglican)는 4%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규모가 커 약 700곳의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약 40곳은 웨일스에 위치해 있다.

교회의 문화재 등록 여부도 폐쇄 가능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등급 문화재(Grade I)로 지정된 교회에 속한 신도들은 일반 교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대성당(Cathedral)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2030년 이후에도 운영될 것이라 확신했다.

내셔널처치트러스트는 “대다수 교회 건물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교단별 재정 압박, 유지비용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경 기자

캐나다 교회 협의회, “아동에 대한 위험 심각” 경고



©pixaba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캐나다 교회 협의회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면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연방 정부에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아동권리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 임명을 촉구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협의회 회장 아만다 커리 목사는 지난 8일 마크 카니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 유인 사례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서한은 협의회 산하 정의와 평화위원회의 ‘성적 착취 종식 워킹그룹’에서 작성한 것이다.

커리 목사는 서한에서 “우리 교회들은 신앙에 기초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집단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독립적 아동권리위원회를 즉각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구가 교육, 주거, 식량, 보건, 온라인 안전 등 공공 정책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단순한 행정적 장치가 아니라 도덕적·실천적 필수”라며, 아동의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목소리를 반영할 독립적 응호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리 목사는 특히 원주민 아동들의 권익 보호를 위

한 특별 조치로도 아동권리위원회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종·살해된 원주민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국가 조사 위원회의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서한은 또 “아동은 가정과 돌봄, 존엄과 기회의 권리 갖는다. 성경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가복음 10:14)고 가르치고 있다”며 교회가 신앙의 책임으로 아동을 보호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유니세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아동 복지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아동 빈곤율, 식량 불안정, 보건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규정했다.

협의회는 캐나다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국내 단체들이 캐나다 정부에 아동 권리위원회 신설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전했다.

끌으로 커리 목사는 “캐나다가 모든 아동이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아동권리위원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월~금 오후 7:30
청년초성경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LA 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기섭 담임목사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3부예배(서시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후 6:00

대학성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LA 씨티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엘리야 김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www.hancheungs.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김유철 담임목사

김유철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김성원 담임목사

김성원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세계기도회(화~금)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포 세우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일형 담임목사

김일형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세계기도회(화~금) 오전 5:30 (월~토)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이수호 담임목사

이수호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고자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강지원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주일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10:00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김창섭 담임목사

김창섭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온라인)

한현종 담임목사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고광선 담임목사

고광선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아침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곽부환 담임목사

곽부환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주일예배: 아침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ng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국윤권 담임목사

www.jimyouchul.com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성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org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예배 오후 11:30
EM예배 1부 오후 9:45/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장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로예배(아메리카)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학년제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별다른국제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성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당목사



열반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어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c.org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4부예배 오후 2:00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주일 예배 오후 7:30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church.com

주일 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청년예배 EM 오후 1:30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8:00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AM 교회학교예배 11:00AM
새벽기도회 화~토 6:00A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오전 9:0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복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밀집강해 오후 7:30
4부예배 오전 1:45 새벽예배 오전 5:30(금) 오전 6:00(토)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미국의소리, 대북 방송 재개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SNS 때문”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이하 VOA)가 6개월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 2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캐리 레이크(Kari Lake) 미국 글로벌미디어(이하 USAGM) 대표 대행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VOA 중단 관련 재판에 참석해 VOA 방송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USAGM은 VOA와 자유 아시아방송(RFA)을 관할하는 기구로, 공화당 소속 레이크 대행은 USAGM 특별 고문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대표 대행을 맡고 있다.

VOA는 지난 3월 대북 방송을 중단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오다가, 이번에 법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캐리 레이크. ©Gage Skidmore

올린 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아 보인다”고 했다.

NK뉴스는 또 이재명 정부가 접경지역 확성기 방송과 군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VOA 방송 재개가 이를 상쇄하려는 조치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연방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USAGM 인력을 대폭 줄이며 VOA 방송도 사실상 멈춘 바 있다. VOA 노조는 이를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미국인 절반 “성경은 문자 그대로 진실 아냐”



©pixabay

미국 성인 가운데 약 절반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고대 신화적 요소를 담은 유익한 기록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3,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리고니에 신학 현황 2025(State of Theology 2025)’ 보고서에 담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 고대 신화를 담은 기록”이라는 진술에 동의했다. 반면 43%는 이에 반대했으며, 8%는 확신하지 못했다. 남부 지역 거주자, 복음주의자,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은 성경을 신화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반면 대도시 거주자와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상 가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도 낮았다. “성경은 가르치는 모든 것이 100% 정확하다”는 진술에 49%만이 동의했으며, 44%는 반대했다.

하나님의 본성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진술에 66%가 동의했지만, 26%는 반대하거나 확신하지 못했다. 또한 “삼위일체 하

나님을 믿는다”는 진술에는 71%가 동의했으나, 30% 가까이는 부정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의 48%는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40%는 이에 반대했다.

윤리적 문제에 관한 태도에서도 뚜렷한 분열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로 창조하셨다”는 진술에는 65%가 동의했으며, “전통적 결혼 밖의 성관계는 죄다”라는 주장에는 52%가 동의했다. 반면 동성애와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성경의 동성애 금지 규정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에 41%가 동의했으며, “사람은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항목에는 38%가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인의 절반은 여전히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본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권위를 가진다”는 진술에 50%가 동의했으며, 44%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보는 전 세대와 달리, 오늘날 미국인들이 보다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미경 기자

한글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지성 담임목사
-부 07:30AM -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gmc.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0:30 중고등부(Youth) 10:30
주일부(EM) 10:30 대학령년부(College) 10:30
유년부(K-2) 10:30 학교예배 주일 12:40
초등부(3-5) 10:30 새벽예배(화-토) 0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장수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장수영 담임목사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강문수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강문수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拉斯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을 등이로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 오전 11:00
주일2부예배(EM) 오전 11:00 새벽기도회(임금임세)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모모임(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노트инг(금)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화-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 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새벽예배(화-토) 오전 7:30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ol.org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00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iccc.office@gmail.com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11:30 AM
주일 예배 2부 오후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vlchurch.com/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v.org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발기회 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vkcc.org/lvcc/index.php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 것의 명장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더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터닝 포인트를 설립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보수 기독교 운동을 펼쳐왔던 찰리 커크가 유타주 오렘의 유타 밸리 대학에서 연설 중 암살당하자, 그를 추모하는 물결이 전 세계에 일어났다. 지난 21일(주일) LA영생장로교회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찰리 커크 추모 물결 LA 한인에게도

미국젊은 애국보수 운동가요 터닝 포인트 USA를 운영해 온 찰리 커크(Charlie Kirk)가 지난 9월10일 유타주 오렘의 유타 밸리대학 교 행사 연설 중 암살 당하자 제2 제3의 찰리 커크가 엘에이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에 젊은층을 리드하였던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월 21일(주일) 오후 4시에 LA 한인타운 영생장로교회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은 찰리 커크 애국

자 추모식 준비위원회(회장 김회창 박사, 트럼프 자문위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심진구 행사 사무총장(Korean Veterans Military Christian In So. CA: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장)의 인도로 예배에서 칼빈대학 전 총장인 김재연 목사(영생교회 담임)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LA 추모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김회창 총회장(RTVKT)이 개회인사에서 제3, 제4의 찰리 커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추모식에서 조사에 LA 시장 공화당 예비후보인 앤드류 킴 변호사와 오렌지카운티한인회 피터 윤 전 이사장이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추모사에 한기형 박사, 주준희 박사, 김현석 박사, 로렌스 페 법무 박사, 샌신 남가주교협 회장 등이 그의 애국심, 신앙, 진리, 성경적 애국정신을 이어가자고 권면했다.

3부에서는 LA 미션 콰이어 찬양자들과 참석자들은 찬양과 교제를 통해 애국심을 이어가기를 결의했다.

추모위원장 김회창 박사 기사 제공

어노인팅교회 <마음 웰빙 몸 웰빙> 강좌 개최

ANointing MINISTRY CHURCH 마음 웰빙 몸 웰빙

10/11토 수잔 정 정신과 전문의

10/18토 전 달훈 내 과 전문의

토요 강좌 11A.M.

참석 신청 C) 224.622.9183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노인팅교회(신경섭 목사, 라크라센타 소재)는 “마음 웰빙 몸 웰빙 전인 건강”을 주제로 2주 연속 토요 강좌를 개최한다.

10월 11일 토요일에는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 10월 18일 토요일에는 내과 전문의 전달훈 박사의 특강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수잔 정 박사는 카이저 병원 등에서의 40여년 폭넓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과 자녀의 ADHD 이야기를 비롯해 한인 커뮤니티에 정신 건강 전반의 중요성을 알려온 1세대 정신과 전문의로, 은퇴 후 <수잔 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며 대중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어노인팅 교회 관계자는 “평소 신앙 따로 건강 따로가 아니고, 마

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닌 영혼육 전인적 건강을 목표로 저희 교회가 토요 강좌를 개최하던 중 상반기의 신체 건강 강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2주 연속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신체 / 정신 건강으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전인 건강을 지향하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강의에 이어 질의 응답, 필요

시에는 개별 약식 면담을 합니다. 평소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라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토요 강좌는 무료이며 10월 11일, 18일 각 11시로 식사 준비 관련,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연락처 T 224.622.9183).

조셉 리 기자

은혜한인교회 고성준 목사 초청 추계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는 10월 2일(목)부터 10월 5일(주일)까지 수원 하나님교회 담임 고성준 목사(Re-Hope 난민을 위한 NGO 이사장,

컴 미션 국제 이사)를 초청해 ‘하나님의 계획’을 주제로 추계부흥 성회를 연다. 부흥회 일정에 맞춰, 교육부 부흥회도 같이 진행된다.

부흥성회 일정

10월 3일(금) 오전 5:15, 저녁 7:30,

10월 4일(토) 오전 6시, 저녁 7:30,

10월 5일(주일) 1부 예배-4부 예배,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강준민 칼럼

공부하면 변화됩니다

강준민 목사
생명비전교회

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좋은 차원에서의 변화입니다. 더 아름답게, 지혜롭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둘째, 나쁜 차원에서의 변질입니다.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듯, 변질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부는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공부하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다양한 차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고정관념 속에 살게 됩니다. 고지식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편향된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잘못된 확신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지가 지식보다 더 큰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욱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넓어집니다. 같은 상황도 더 깊이,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둘째, 공부

는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공부를 지겹게 여긴 사람은 학교를 졸업한 뒤 책과 멀어집니다. 반면 공부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배우는 법을 터득한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일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인생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셋째, 공부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배울 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배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합니다. 공부를 습관으로 삼은 사람은 꾸준함을 삶의 힘으로 갖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재능보다 꾸준함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타월함은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삶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독서는 생각의 근육을 단련시켜 깊이 있고 오래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통찰력이 열립니다.

넷째, 공부는 적응력을 변화시킵니다. 타월한 인물들은 언제나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상황에 잘 적응했습니다. 적응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응을 잘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 경쟁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전략가 몰트케도 "전쟁은 적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다. 첫 전투가 끝난 후에도 기준 작전이 유효할 거란 보장은 없다"라고 말하며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그림을 보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압니다. 물론 큰 그림을 보고, 인생 전체를 생각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응력이 타월해야 합니다. 생각이 유연하고 대처하는 법이 유연해야 합니다.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는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더 깊은 인간관계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속적인 배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학습을 통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책을 읽고 숙고하는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공부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평생 학습을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제가 매일 공부하는 이유는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빛어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공부(工夫)란 사람이 힘과 노력을 들여 어떤 일을 다듬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연마, 수련, 깊은 노력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깊고닦는 삶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저 또한 늘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한결같

■ 진유철 칼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고 하셨습니다. 생명과 멸망이라는 다른 끝이 있는데, 생명의 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과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은 출발이고 길은 과정입니다. 문제는 멸망의 문과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이고, 생명의 문과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종교 다원주의 자들은 사람들 듣기에 좋고 멋진 말, '종교는 사랑인데 관용이 있어야지 질투하거나 편협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혹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라는 진리가 틀린 것처럼 말장난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리는 다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2라는 진리를 가지고, 왜 편협하게 2만 정답이라고 하느냐, 4라고도 하자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 다수결로 더 많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임에서는 1+1=4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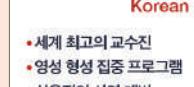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히9:27), 성경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고 말씀합니다. 끝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하나뿐입니다. 죄 사함과 부활의 생명의 문과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이 진리이기에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먼저 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길을 가다면 구원의 문이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고 하시면서, 지금은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지만 닫힐 때가 있음도 말씀합니다. 열려있을 때는 그것이 문인지 잘 몰라도 닫히고 나면 확실히 깨닫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즉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건강할 때 움직이는 것은 쉽지만 병들면 쉬운 움직임도 안 됩니다. 둘고 도는 돈도 있을 때 선을 행하고 현금하는 것은 쉽지만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기도와 말씀도 어느 날 닫히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으로 은혜의 구원자이시지만, 이제 곧 닫힌 문이 되면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 적은 문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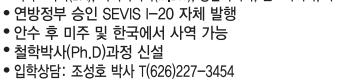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카카오톡 채널: "탈보" 검색
- 영상적인 학습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울린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육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강태광 칼럼

그냥 지나치지 말자!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주목했다. 피해자가 질규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깨어 불을 밝혔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38인을 질타했다. 다른 언론도 일제히 방관자들의 기이한 행태를 지적하며 '차가운 사회' 그리고 '무감각한 시민정신'을 지적했다. 그 <38인의 침묵>은 차갑고 무책임한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표제어가 되었다.

<침묵하는 38인>에 우리 얼굴은 없을까? 차갑고 비겁하게 침묵하는 무리들 가운데 교회나 성도는 없을까?

<침묵하는 38인>의 대청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도를 만나서 상처 입고 신음하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있을까? 적어도 미주 한인 교계에는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다.

미주 남가주(Southern California) 지역에 교회가 교회를 돋는 위브릿지(We-Bridge)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한 기독 언론사가 연결하고 교회들이 협력해서 교회가 교

회를 돋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회가 힘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근사한 일이다. 많은 나눔과 섬김의 프로그램을 보고 경험했지만, 위브릿지 프로그램만큼 복되고 멋진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

미국 장로교회(PC USA)가 매년 사순절에 실시하는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One Great Hour of Shar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194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기아, 가난, 억압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순절 기간에 모금한다. 신학적 문제로 아쉬움이 많은 미국 장로교회(PC USA)가 실천하는 멋지고 위대한 나눔이다.

한국 방문 중에 조소형교회들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우연한 방문이었고,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찾아갔다. 훌륭한 목회자들의 힘찬 목회도 보였고, 지친 목회자의 애달픈 몸부림도 보였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에게서 연약한 영혼들을 부둥켜안고 영혼과 교회를 세우려는 몸부림을 보았다. 그들의 열정과 눈물에서

희망과 처절한 아픔이 보였다. 이런 교회와 목회자에게 용기를 줄 수 없을까? 이런 목회자를 돋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을까?

사마리아로 가는 외딴길 강도를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인적조차 드문 곳에서 그를 도울 사람은 없었다. 몇 사람이 그를 지나쳤다. 그런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이다.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하는 그의 사랑은 고통받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에서 출발했다.

작은 교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의 작은 교회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고, 국내 전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들을 도와왔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돋고 섬겨야 한다. 신음하는 작은 교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자! 선교적 열정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맘으로 교회를 돋고 섬기자!

신성욱 칼럼

채찍 없는 리더십: 벤허와 물러

故 이건희 회장 생전에, 한 언론사 기자가 삼성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다. 이 회장은 뜻밖에도 영화 이야기를 꺼냈다. '벤허'를 보면 아주 인상적인 전차 경주 장면이 나온다. '메살리'는 말들을 채찍으로 강하게 후려치는 데 반해, 주인공 '벤허'는 채찍 없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벤허는 경기 전날 밤, 네 마리의 말을 어루만지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채찍 없이 동물의 마음을 움직이는 벤허와 같은 인재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벤허의 4마리 말은 모두 하얀색의 멋진 말들이었고, 각자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벤허는 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쓰다듬어 주며, 결전을 앞둔 말들에게 전차 경주의 전반적인 전략을 알려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경주는 경기장 아홉 바퀴 도는 게임이란다. 우리는 여덟 바퀴까지 2등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아홉 바퀴째에는 전력 질주해서 1등을 확 따라잡는 거야. 자신 있지? 그래, 우린 이길 수 있어!"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벤허가 말들의 특성을 일일이 살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 점이다. 빠른 말은 외곽으로, 빠르지 않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말은 제일 안쪽으로, 보통 이지만 끈기 있는 말은 중간에 배치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전차 경주에는 총 8개 팀이 출전하였다. 다들 긴 채찍을 들고나왔지만, 벤허의 손에는 말고삐가 전부였다. 모든 선수가 조반부터 사정없이 채찍질하면서 말들을 몰아세웠으나, 벤허는 채찍 대신 말

고삐로 말들과 교감을 하며 승부를 걸었다. 말고삐의 강함과 힘찬 함성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벤허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벤허'였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벤허의 리더십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 전술적 배치가 네 마리 말들로 하여금 막강한 팀 파워를 일으키게 하였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삼성'이 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고 이건희 회장이 영화 '벤허'에서 드러난 리더십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과 교감', '적재적소 배치', '조화', '자신감', '동기 부여', '지속적인 격려', '배려' 등의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벤허가 말들에게 채찍 대신 격려와 교감을 택했던 것처럼,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시며 소통과 격려로 우리를 이끌고는 분이시다.

실제로 이런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한 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돌본 목회자이자 신앙의 거장인 조지 물러(George Müller)이다.



물러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채찍 같은 강압으로 아이들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항상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격려했다. 그 결과 고아들은 단순히 밥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미래를 향한 힘과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물러의 사역이 오늘날까지 감동으로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이끄는 그의 리더십' 때문이다.

사랑으로 이끌며, 서로를 적재적소에 세워주고, 끝까지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면서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

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각각의 성도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될 때 강력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십'에 있다. 채찍이 아니라 '격려', 강압이 아니라 '교감', 지시가 아니라 '소통'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적재적소에 세워주며, 끝까지 함께 달려간다면, 마침내 인생의 경주에서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인생도, 벤허의 말처럼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반드시 승리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물류 1-877-580-2424 삼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커리,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 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믄!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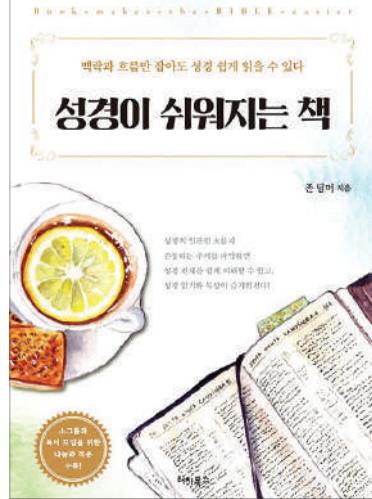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LOVING
주관 FORSHI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성경, 맥락과 흐름만 잡아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자기 백성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야기 담긴 책, 성경



성경이 쉬워지는 책

존 팀머 | 터치북스 | 240쪽 | 20,000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맥락을 짚어주는 성경 입문서. 소그룹이나 독서 모임을 위한 맥락 중심의 성경 입문서다

저자가 성경을 두고 한 저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데에는 명확한 흐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과 인도자 지침서가 첨부되어 있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영적 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제는 상당히 많은 책을 출간한 터치북스에서, 생소한 저자인 존 팀머가 쓴 『They Shall Be My People』이 번역·출간됐다. 제목은 '성경이 쉬워지는 책: 맥락과 흐름만 잡아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출판사는 저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존 팀머는 여러 세대에 걸쳐 말씀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심어 온 가정에서 태어났다.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태어난 그의 12세 때 나치는 네덜란드를 침공했으며, 그는 청소년기를 추위, 굶주림, 위험, 두려움과 함께 보냈다. 거리 전도와 YFC(Youth For Christ)에 참여해 신앙생활의 열심을 냈다. 1952년 미국으로 이주해 칼빈신학교와 하트퍼드신학교 졸업 후 암스트르메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4년 동안 일본 선교사로 기독개혁교회(CRC 교단)를 섬겼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우드론기독개혁교회(미시건주 그랜드래피즈 소재)에서 목회를 한 뒤 1995년에 은퇴했다. CRC 교단 교육위원장 하비 스미트는 머리말에서 2018년 소천한 팀머의 설교 특집에 관해 "신선향, 깊이, 언어적 절제로 유명했으며, 지금도 신학생들의 모델이자 선교자들의 참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8쪽).

팀머는 성경을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로 풀어낸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곳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함께 통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일관된 이야기의 흐름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성경을 몇 구절만 떼어 읽거나 전체적인 맥락 없이 일부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

을 놓치기 쉽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제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지만 큰 그림을 알고 나면 그 상관관계를 더 분명히 알게 된다.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성경 신학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 신학 책은 두껍고 복잡하다. 쉽고 간단하게 쓴 책은 때로 깊이가 없어 보인다. 팀머는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신학을 가까이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신선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이 책은 매우 실용적이기도 하다. 각 장 끝에 나눔과 적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소개 및 찬양), 읽은 내용을 어떻게 복습하고 나누며,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모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제공한다. 모임을 인도할 사람을 위하여 QR코드를 통하여 "나눔과 적용" 인도자 지침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실히 성경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이야기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저자 팀머는 일반적인 성경신학 이야기 속에 자신이 발견한 신선하고 독특한 요소를 종종 언급한다(예: 신약성경에서 발견한 구두 형식 세례 교육용 교리서). 성경 역사와 교훈이 어떻게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지 발견할 때마다 흥분과 감동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함께 제공하는 지도와 연대표 등도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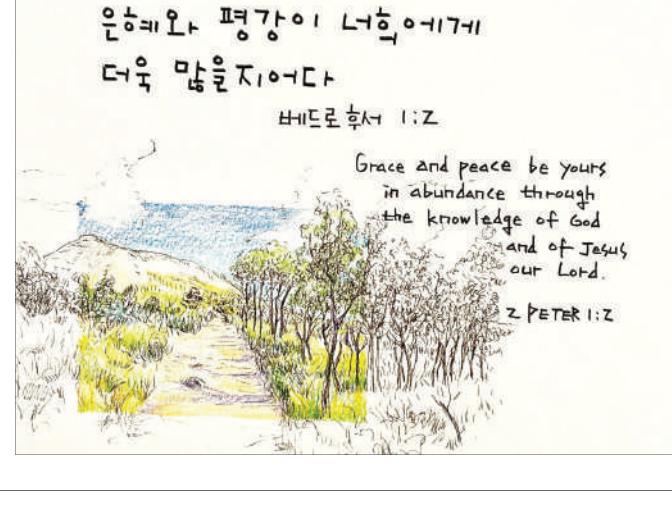
©Joel Muniz/Unsplash

데 도움이 되고, 쉽게 쓴 성경신학 서적이 간과하기 쉬운 시가서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른 것도 무척 유익했다. 저자가 오랜 세월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장점은 만들어낸 것 같다. 학자로서 학생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제공하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게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는지, 저자는 독자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한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 사랑의 줄거리를 벅찬 기쁨으로 설명하는 저자의 책을 통해 모든 독자가 성경을 더 쉽고 더 사랑스러운 책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그 성경을 기쁨으로 읽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교육 및 중고등부 풀타임 사역자를 찾습니다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Is looking for
A Full-time Education and Youth Pastor

■ 지원 자격 Preferred Qualifications:

- 기독교 교육과 중고등부 사역에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Experienced with Christian education and youth ministry
- 정규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Graduated Seminary with Master of Divinity Degree or Ordained Pastor
-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Eligible to Work in US

■ 제출 서류 To Apply:

-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 문 Resume (Including a Picture) and Statement of Faith
- 최근 설교 링크 또는 파일 Recorded Sermon Link or File
- 신학교 졸업 및 안수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and Ordination.
- 추천서 2통 Two References

■ 접수 마감일 Application Deadline: 2025. 11. 24

■ 보내실 곳 Address: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pastorlee7@yahoo.com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pplication documents can be submitted in PDF format

All submitted paper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 이성현 목사 Rev. Sanghyun Lee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랄리한인장로교회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전쟁과 예술

6.25 전쟁 참상 화폭에 담아냈던, 월남 미술인들

김원, 후퇴하는 국군 행렬 포착
이수억, 리어카 피난 모습 묘사
함대정, 필선 난무하는 추상화
최영림, 아내·딸 사별 아픔 표현
윤중식, 피난민 28점 수채화로
작품 통해 전쟁의 공포 되새겨

월남 미술인들은 일제시대부터 서울에
와 있던 미술인을 비롯해 해방 후 내려온
미술인, 1.4후퇴 때 피신 온 미술인으로 구
분된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4후퇴 때 월남한 작가들이다. 중공군의 개
입으로 퇴각하는 군인들과 함께 피난을 내려
오면서 수많은 난민과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월남 미술인들 역시 자유를 찾아 남행을 결정했지만, 피난길 역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먹을 것, 마실 것, 심지어 잘 곳과 떼을 것조차 없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들을 짓눌렀다.

인명 손실과 정신적 피해, 상흔까지 생각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초자하기 힘들 것이다. 이들은 피와 눈물로 점철된 전쟁 상황을 화폭에 담았는데, 그들 자신이 전쟁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김원(1912-1994)의 '1.4 후퇴(1956년)'는
후퇴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행렬을 포착하고
있다. 김원은 1.4 후퇴 시 피난 도중 철순 노
모와 아내가 숨졌을 뿐 아니라 두 아들 역시
피난의 북새통에 헤어졌으나, 전쟁이 끝
난 후 가까스로 고아원에서 재회했다.

그림 한복판에 흰 한복을 입은 허리가 구부
정한 할머니가 등장한다. 바로 작가의 노모
를 모델로 하고 있다. 철없는 손자가 기나긴
피난길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재촉하는 모

습이 보인다. 그림 왼편에는 동생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언니의 모습, 이를
안쓰럽게 지켜보는 아버지,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떠나온 고향을
바라보는 여인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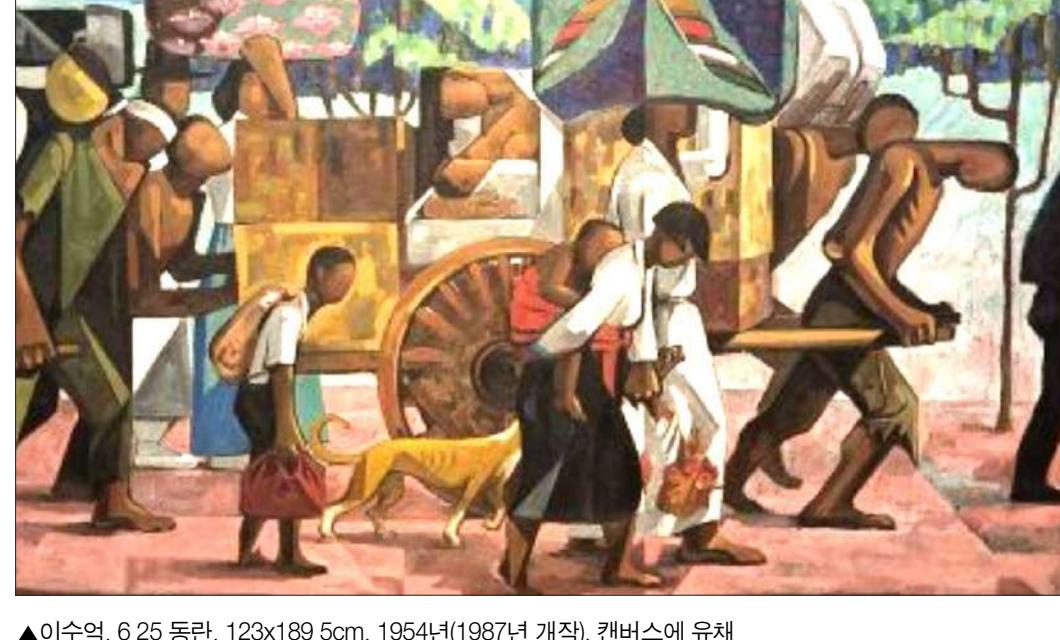
이에 비해 이수억(1918-1990)
의 '6.25 동란'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전쟁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6.25 동란'은 리어카에 짐을 가득
싣고 피난길에 오른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온갖 집안 살림을 실은 리어카를
끄는 남성과 그 옆으로 지게를 진
또다른 남성이 눈에 띈다. 중년 여
성은 큼지막한 이불 보따리를 머리
에 이고 한 팔에는 수탉을 움켜쥐고
있으며, 동생을 업은 소녀는 지
친 듯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
뒤를 따르는 남동생인 듯한 소년도
피난이 힘겨운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함대정(1920-1959)의 '무제(1950)'는 필
선이 난무하는 추상화이다. 추상작품이자
만 어떤 사실적인 작품보다 다가오는 울림
이 크다. 낡고 바랜 색조를 통해 희망 없이 살
아가는 전쟁의 나날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그의 필선들은 일정한
방향 대신 갈 바를 정하지 못한 채 훈란 속에
휩싸여 있다.

격정적 필선을 통해 시대를 거역하고 싶은
몸부림과 자아의 격앙된 정서를 감지해
볼 수 있다. 그림을 보고 있자면 포화를 맞아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과 무서운 굉음을 떠올
리게 한다.

'주호회' 동인이었던 최영림(1916-1985)
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금강산에 피신해
있다가, 국군과 함께 남하한 경우이다. 아내



▲이수억, 6.25 동란, 123x189.5cm, 1954년(1987년 개작), 캔버스에 유채.

와 어린 세 딸이 해주까지 내려왔다가 길이
막혀 돌아가는 바람에 영영 이별을 하게 되
었다. 그때의 아픔을 최영림은 '여인의 일지
(1959)'에 새겨놓았다.

화면에는 형체를 구분할 수 없는 네 인물
이 등장한다. 목판화를 연상시키는 검은 선
과 면, 어두운 색채로 인해 인체는 어떤 불길
한 기운에 휩싸이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
는 형체를 목격하게 된다. 두 팔을 벌리고 있
는 전면의 아이와 엄마는 길을 가로막고 위
협하는 사람 앞에서 애원하거나 저항하는 포
즈를 취하고 있다.

윤중식(1913-2012)은 일본 유학 후 보
성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있었으나, 해
방 후 공산주의 지배체제가 공고해짐에 따
라 탄압 대상으로 몰렸다. 탈출을 더는 늦
출 수 없다고 판단한 윤중식은 가족과 함
께 피난길에 올랐다. 그런 와중에서도 윤중
식은 월남 과정에서 목격한 피난민들의 모
습을 그때그때 종이에 옮겨 28점의 수채화
를 제작했다.

불바다가 된 평양, 황급히 길을 떠나는 피
난 행렬, 주위에 떠는 아이들, 협간에서 잠
시 눈을 부치는 사람들, 소달구지에서 떨어
져 다친 아이들,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피아를 가리지 않는 전투기의 폭격
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시신을 불
들고 통곡하는 가족 등의 장면을 담고 있다.

"먹지 못하고, 주야를 막론하고, 남으로...
모든 것을 단념하고...". 작가는 첫 번째 그
림 뒷면에 그의 심경을 적어놓았는데, 얼마나
절박한 심경이었는지 가늠케 해준다.

윤중식은 평양을 등지고 개성으로 항할 때
온갖 고생을 다 했다. 그림은 크게 원경과 중
경과 전경으로 삼등분돼 있다. 원경의 공중
에는 하늘을 가르는 폭격기 두 대가 득달쳐
럼 달려오며 포격을 펴붓고 있고, 중경의 피
난민 대열은 그 순간 행렬을 이탈하며 뿔뿔
이 흩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쓰
러져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에 매달려

울부짖는 아이도 목격된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부지기수였지요. 깊은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울부짖는 신음들이 여기저기
서 들려왔습니다(윤중식, 윤대경, 『할아버지
의 양손』, 상수리, 2023. 73쪽)."

그의 생애에서 1951년 6월 19일은 가장 고
통스러운 날이었다. 그의 가족이 해주 근방
에 왔을 때였다. 전투기가 갑자기 나타나 포
격을 가하자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그의 가족 역시 카오스 상태에 빠지게 됐다.
너무 놀라 아내와 장녀와 떨어지는 순간, 가
족과 영영 이별하게 됐다. 간신히 자신의 손
을 잡고 있던 아들과 등에 업고 있던 막내딸
은 간신히 살릴 수 있었으나, 피난 도중 굽
어죽었다.

전쟁이 끝난 후 작가는 장녀를 찾기 위해
고아원을 살살이 뒤져보았으나,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윤중식은 '몇십 년 동
안 밤이면 꿈에서 혜경이(큰 딸)가 나타나는
바람에 놀라 깨어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윤중식, 윤대경, 『할아버지
의 양손』, 75쪽)."

남한에 정착한 뒤 발표한 그의 작품에는 유
독 새가 자주 눈에 띈다. "내 일생이란 게 그
저 고향가고 싶은 생각과 헤어진 딸을 보고
싶은 생각으로..."

새처럼 자유로이 날면서 가고 싶은 곳, 만
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 보았으면 하는 간절
함이 귀의(歸依)의 감정에 둘러싸인 서정적
인 풍경화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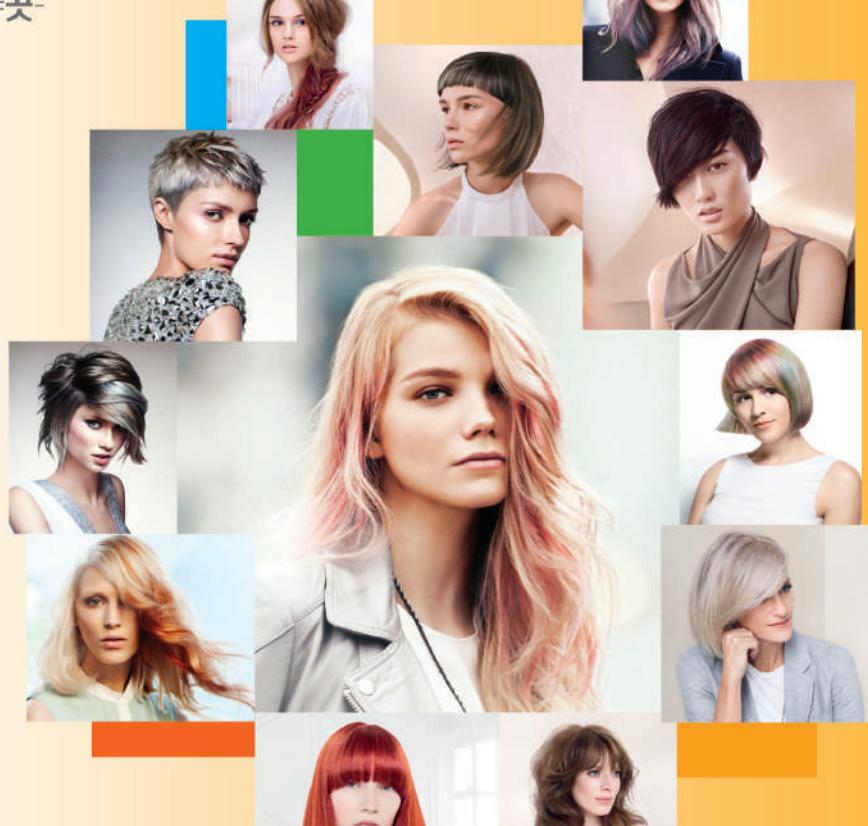
월남 미술인들의 작품은 역사의 격랑에
서 헤어지거나 잃어버린 가족, 피난민, 동족
의 아픔을 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공
포와 비통으로 얼룩진 6.25의 과거를 되새
기게 된다. 인간의 도덕의지를 시험하는 전
쟁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 그런 기억을 다
시 되뇌며 봇을 잡는 미술가의 마음은 갈가
리 찢어진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윤중식, 전쟁 드로잉, 19.9x26.5cm, 종이에 수채, 크레용 등, 1951년, 사진제공
성북구립미술관.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라

\$40
부터
시작

*단, 컬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리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미주
1기

W . O . R . L . D . M I N I S T R Y S E M I N A R

WORLD

Worshiping

Dikos

Reaching-Out

Life-Giving

Discipling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

2025년 11월 17일(월) - 20일(목)
달라스 세미한교회



1차 신청: 10월 15일(수) 까지

신청 QR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 20일(목) 목요일 성령집회예배 필수참여

장소 **달라스 세미한교회**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캐럴턴)
9750 John W. Elliott Dr, Frisco, TX 75034 (노스캠퍼스)

강사 **최병락 목사, 이은상 목사, 월드 담당 사역자**

대상 만 55세 이하 담임목회자 35명 (회비 \$150) 세미나 중 호텔, 식사 포함 (항공료 별도)

문의 214-433-5347 / semihanwmi@gmail.com

* 연락 가능시간: 화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30분 (Central Time)

월드사역연구소는 21세기 교회 사역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Think Tank로서 교회 사역의 필수적인 예배, 소그룹, 지역사회 섬김, 복음 전파, 제자 재생산 사역을 W.O.R.L.D. Ministry로 구체화 하여 준비된 매뉴얼과 좋은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선교지에서나 곧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돋고, 교회 개척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복음 전파와 제자 재생산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O.R.L.D. Ministry로 함께 나아갈 교회와 목회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큐알코드 & 세미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세미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세미나 참석 특전: 회원 교회 선정 자격을 드립니다.



월드사역 연구소장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월드사역 미주소장
세미한교회 담임

Special Guest

세미한워십



주최, 주관



W.O.R.L.D. Ministry

월드사역연구소



세계의 화목은 한결을 그리스도로

세미한교회

SEMINHAN CHURCH



강남중앙침례교회

GANGNAMJOONGANG BAPTIST CHURCH



월드사역연구소
소개영상

세미한교회
홈페이지